

藏書開發과 收書問題

孫 正 彪
慶北大 圖書館學科

1. 序 言

오늘 第20回 全國圖書館大會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1970年代에 접어 들면서부터 重大한 當面課題로 되어 있는 「藏書開發과 收書問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0年代 後半에 접어 들면서부터 社會가 自動化된 技術工學的 產業社會로 急變하여 감에 따라 圖書館의 社會的 基礎를 이루는 政治, 經濟, 文化 등도 多樣化 내지 多邊化의 方向으로 急變하여 감으로서 오늘 날의 社會는 점차 高度한 知識과 機能의 總力化된 要求의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마침내 새로운 學問領域의 發展과 더불어 情報의 微視的인 分化現象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1950年代부터는 情報의 出版量도 10年마다 倍增現象을 가져와 年間 50萬種의 圖書와 10餘萬種의 定期刊物이 出版되고 있어 실로 情報爆發의 時代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現實社會 改造의 一翼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圖書館들도 그와같이 急增하고 있는 知識總量을 如何한 方法으로 신속히 分析·綜合하고, 大量傳達體制의 開發을 통하여 利用者와 資料間에 相互有機的인 關係를 맺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情報奉仕構造 再體制化의 重大한 局面에 直面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高度化 되어가는 知識領域과 知識總量의 擴大, 要求範圍의 多樣化 및 人的 能力과 豫算의 制限性이라는 現實속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合理的이고 經濟的인 藏書開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根本的인 問題가 오늘날 大部分의 圖書館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問題中的의 하나라 할 것이며, 특히 1960年代 後半期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餘年동안 國內外的의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論難의 對象이 되어 왔고 또한 多角的인 方法으로 研究되고 있는 問題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現今의 國家政策의 方向을 살펴 보면 經濟的인 面에서는 지난 4次에 걸친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성공과 더불어 社會가 高度工藝社會로 急變

하여감으로써 1980年代에는 頭腦集約産業開發의 必要性이 더욱 심각한 國家的인 問題로 대두됨에 따라 今年에 第5次經濟社會發展五個年計劃을 發表하고 安定되고 균형있는 經濟社會發展圖謀와 더불어 앞으로 到來할 知識集約産業社會에 대비하는 國家開發을 본격적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頭腦集約産業開發의 效率的인 目標達成을 위하여 政府當局에서는 數年前부터 科學技術情報의 效率的인 活用을 위한 方案으로 圖書館開發에 關心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今年度에는 情報社會化 適應을 위한 데이터通信網開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教育的인 面에서는 急變하고 있는 現實社會에 適應하여 나아갈 수 있는 人間形成을 위하여 憲法 第29條에 明示된 平生教育의 振興定策을 펴는 한편, 學校教育은 課外授業廢止와 入試爲主 教育의 止揚 등과 더불어 全入教育을 實施하도록 하고, 大學教育은 卒業學點을 감축하여 傳統的인 講義中心教育을 脫皮하고 自律學習態도와 思考力, 創意力, 判斷力의 培養을 위한 課題中心教育의 實施 및 大學院中心 教育의 推進 등이 활발히 進行되고 있어 그와 같은 一連의 變化에 대처하여 나가기 위하여 우리 圖書館界도 時代的인 要請에 부응하는 藏書開發과 情報流通構造體制의 確立의 必要性이 더욱 시급한 實情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와같은 當面問題解決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먼저 우리나라 圖書館들의 藏書開發現況을 간단히 살펴 보고 다음으로 國內外藏書問題와 豫算問題 共同藏書問題 등에 대하여는 主題發表에서 具體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서는 단지 協會側의 要請에 따라 國家政策推進의 效率的인 支援을 위한 藏書開發과 收書의 基本方向만을 中心으로 愚見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藏書開發의 現況

1960年代에 접어 들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圖書館人들의 부단한 努力의 結果는 비록 先進國들과는 比較가 안된다 하더라도 圖書館의 三大要素인 施設, 資料, 人的資源面에서 長足的인 發展을 가져다 주었다함은 自他가 公認하는 事實일 것입니다.

그러나 內實의 面에서 볼 때 現在 直面하고 있는 國家政策을 遂行하여 나가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감을 주고 있다 하겠으며, 특히 藏書開發面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 原因은 우리나라 圖書館들의 設立過程을 볼 때 1960年以後에 設立된 公共圖書館이 89.0%, 學校圖書館이 97.9%, 가장 發展하였다고 볼수 있는 大學圖書館이 61.3%, 特殊圖書館이 91.6%로 나타나 거의 大部分의 圖書館들이

불과 10~20餘年の 짧은 歷史 밖에 되지 않는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藏書開發을 위한 積極的인 投資가 부족한 점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들의 現況을 좀 더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公共圖書館의 現況을 살펴 보면 1979年 現在 人口 1人當 藏書量이 0.033冊으로 나타나 外國과 比較하여 볼 때 현격한 差異를 보여 주고 있을 뿐 아니라(日本 0.46冊, 대만 0.04冊, 브라질 0.1冊, 美國 0.99冊, 英國 1,390冊, 덴마크 3,271冊) 年次增加量도 1館當 1,000冊 以下가 74.6%, 2,000冊 以下가 83.1%이고, 年間資料 購入費도 人口 1人當 7.78원으로 나타나 역시 外國과 比較하여 볼 때 현격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으며 (1977年 現在 日本 89원, 美國 470원), 이 밖에 定期刊行物도 118個館 全體가 4,769種, 特殊資料는 4,214種 밖에 되지 않는 實情에 있어 量的 側面에서 藏書를 評價하여 볼 때 地域社會의 要求度를 充足시키기에는 너무나 不足된 狀態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經濟性과 效率性이라는 質的 側面의 경우도 구태여 既存藏書에 대한 質的 評價를 하지 않더라도 이의 基礎가 되는 年間資料費와 年次增加量만 보더라도 과연 地域社會 全體의 欲求充足이라는 目的을 어느 정도로 達成시킬 수 있을 것인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여러 研究結果에서도 밝혀진 바와같이 藏書의 量的 規模는 곧 藏書의 質과 밀접한 相關關係가 있다는 것을 認知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現時點에서 볼 때 既存藏書量과 活用性에 基礎를 둔 質的開發을 위하여는 과감한 量的 投資가 先行되어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現象은 學校圖書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1979年 現在 1館當 藏書量이 3,198卷으로 서울·부산을 제외하면 2,719卷으로 나타나고 있고, 1人當 藏書量이 2.3冊 1人當 年次增加量이 0.23冊, 1館當 資料費가 301,261원, 1人當 資料費가 219원으로 大部分의 學校를 除外하고 보면 역시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여 外國의 基準과 比較하여 볼 때 너무나 현격한 差異를 들어내고 있습니다(中國·日本 1人當 5冊, 美國 16-24冊). 따라서 이러한 實情下에서는 學校圖書館이 現在 推進되고 있는 學校教育改革에 效果的으로 對處하여 나가기에는 質的은 물론 量的으로도 너무나 빈약한 狀態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年制 大學圖書館의 現況을 살펴 보면 1979年 現在 1館當 藏書量이 94,177卷, 1人當 藏書量이 28.89卷, 1人當 年次增加量이 2.53卷, 1人當 資料購入費가 8,084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研究資料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定期刊行物도 綜合大의 경우 1館當 1,000餘種에 達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數百萬卷의 藏書와 萬

餘種 以上の 定期刊行物을 갖추고 있는 先進國과는 比較가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館種보다도 광복할만한 發展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最低基準인 1人當 30卷에 到達하지 못한 圖書館이 全體의 5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人當 年次增加量도 最低基準인 2.5卷을 上廻하고는 있으나 國內外 平均定價과 國內外 資料構成比率을 기초로 本人이 定立하여 發表한바 있는 公式에 따라 2.5卷에 대한 資料購入費를 算出하여 본 결과 1人當 19,000원 꼴로 나타나 너무나 많은 差異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도 量的基準 到達에 급급하고 있는 實情이라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는 韓國:日本:美國의 1人當 年次增加量 比率이 1:1.5:1.6인데 비하여 資料購入費는 1:3:2.4로 나타나고 있음만 보더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 의하여 지적된 바처럼 1960年代에는 오직 量的基準 到達을 위하여 相當數의 圖書館들이 利用價値가 없는 염가의 冊들이나 혹은 기증도서들을 登錄하는 등 選擇을 무시한 非計劃的인 集書의 事例도 있고 보면 質的 側面에서 볼 때 藏書評價를 하여 보지 않더라도 教授와 學習, 研究와 調査間에 圖書館資料를 통한 相互有機的인 關係를 맺어주기에는 量的 質的 모두 不足한 狀態에 있다 함은 再論할 必要가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特殊圖書館의 現況을 살펴 보면 1979年 現在 1館當 藏書量이 5천권 以下가 43.4%, 1만권 以下가 78.8%로 나타나고 있고, 年次增加量도 1천권 以下가 61.5%, 2천권 以下가 84.5%이며, 資料費는 500만원 以下가 55.8%, 1천만원 以下가 86.9%로 나타나 역시 特殊圖書館의 경우도 微視的 情報奉仕의 機能을 수행하기에는 基礎藏書量은 물론 豫算도 부족한 狀態에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全體의 56.5%가 70年代 以後에 設立된 것을 감안하여 본다면 比較的 量的, 質的 面에서 茁실한 成長을 가져 오고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科學技術分野나 經濟分野의 경우는 그 歷史에 비하여 量的, 質的 面에서 빠른 成長을 보여 주고 있고, 이 뿐만 아니라 韓國 開發院에서 발표한 1991년까지의 우리나라 經濟社會發展 長期展望을 볼 때 研究開發 投資費 對 GNP比率이 1976年の 0.5%에서 1991년에 2.5%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豫測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加速的인 發展을 예측할 수 있겠으나 頭腦集約產業重點開發이라는 現時點에서 볼 때 微視的 情報를 要求하고 있는 研究者들의 欲求를 充足시켜 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圖書館界의 藏書開發 現況을 綜合하여 한마디로 表現하여 본다면 대체로 大部分의 圖書館들이 質的은 물론 量的으로도 開發水準이 낮은 狀態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個個의 圖書館을 發展시켜 國家의 生命力으로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藏書開發政策과 集書計劃도 거의 不在한데다 法的基準으로 物品管理法 등으로 인하여 經濟性和 效率성에 바탕을 둔 既存藏書의 評價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實情이며, 이 밖에 急變하고 있는 現實社會의 欲求充足을 위한 經濟的인 開發方法中的 하나인 相互協力を 통한 藏書開發體제도 定立되어 있지 않은 狀態에 놓여 있다 하겠읍니다.

3. 藏書開發의 基本方向

에반스(G. Edward Evans)의 주장처럼 藏書開發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地域社會全體의 要求度(community needs)에 비추어 보았을 때 圖書館 藏書가 나타내고 있는 強點과 弱點을 파악하여 現存하고 있는 弱點의 修正을 시도하는 feed back의 過程을 意味하는 것으로, 이는 圖書館 資料에 대한 끊임없는 調査와 評價 및 地域社會 構成員의 要求도와 奉仕를 받을 地域社會의 變化의 兩大側面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研究가 要請되는 計劃的, 組織的인 開發을 意味한다 하겠읍니다. 즉 地域社會의 分析, 選擇 政策, 選擇, 收書, 폐기, 양적 및 질적 평가 등의 6가지 要素의 끊임없는 순환과정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概念을 지니고 있는 藏書開發이란 단순히 1960年代 以前의 概念인 圖書選定이나 1960年代의 ‘藏書構成’이 지니고 있었던 概念, 즉 一定한 설계에 따라 組立하여 나가는 機能的인 建造物처럼 組織的인 集書計劃과 選擇方針에 따른 資料選定과 수집 및 장서확보라는 傳統的인 觀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추상적인 質的 基準보다 오히려 地域社會全體의 要求 및 圖書館全體의 奉仕活動과 연결지워 藏書와 利用과의 觀點에서 藏書의 概念을 理解하고, 단순히 개개 圖書館의 開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相互協力 프로그램과의 相互有機的인 밀접한 關係 속에서 이루어 지는 力動的인 開發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맥리쉬(Macleish)가 “화환이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美를 살리면서도 이들 개개가 전체속에서도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꾸미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것처럼 藏書開發도 곧 어떠한 目的 達成을 위하여 하나하나를 選定하더라도 이들이 또한 전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全體속의 個體라는 基本方向에서부터 藏書開發 政策과 그에 따른 組織的, 具體的인 集書計劃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序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現在 推進되고 있는 國家政策의 效率的 支援을 위한 個個 圖書館들의 未來指向的인 藏書開發과 收書의 基本方向은 어떠한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館種別

에 따른 愚見 몇 말씀 드리하고자 합니다.

1. 公共圖書館

196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加速化되기 시작한 社會構造의 急變 現象은 公共圖書館의 目的과 機能에도 그 變化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즉 더리쉬(Lawrence C. Durish)의 주장처럼 敎養을 重視여겼던 傳統의인 目的觀으로부터 ① 地域社會全體의 知識과 理解增進, ② 技術產業時代의 個人的 問題 특히 기술함양과 여가시간 선용을 위한 奉仕, ③ 기업이나 產業活動과 研究에 대한 集中的 變化에 重點을 둔 目的觀으로의 變化를 要求하고 있으며, 그러한 目的을 効率的으로 達成하기 위한 公共圖書館의 機能도 產業社會가 要求하는 產業技術情報 제공 등 地域사회 발전을 위한 研究的 機能과 地域社會 知識向上을 위한 文化的 機能 및 各自的 職業이나 취미, 적성에 맞는 새로운 敎養과 知識向上 圖謀에 目的을 둔 平生敎育의 場으로서의 公共敎育의 機能을 強調하는 方向으로 그 變化를 要求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公共圖書館의 藏書開發의 方向도 敎養과 敎育 및 餘暇善用을 위한 基本藏書構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目的觀과 機能觀의 變化란 곧 地域社會 全體의 要求度의 變化로부터 직접적인 影響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各種 情報媒體를 통하여 地域社會를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으로 向上시켜 이를 나라의 生命力으로까지 끌어 올리려면 그러한 要求度의 變化에 맞추어 현재 推進되고 있는 平生敎育을 위한 公共敎育의 機能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물론, 기업이나 산업의 활동과 研究 및 기술향상 도모를 위한 專門的인 研究資料 蒐集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와같은 方向으로 開發計劃을 樹立할 때는 무엇보다도 地域社會 全體의 分析과 調査를 통하여 要求度を 파악하고 地域社會의 特性和 敎育水準에 맞는 計劃을 構想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地域社會에서 出版되는 資料와 그 地域社會에 관한 資料 및 地方 行政資料는 圖書形態이건 非圖書形態이건 모두 수집하여 藏書開發의 最高段階인 ‘망라적 수준(true completeness)’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公共圖書館의 藏書開發을 上記한 水準까지 끌어 올려 現在 推進되고 있는 國家政策은 効率的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量的으로는 大都市는 최소한 住民 1인당 0.5卷, 기타는 1-2卷의 장서량과 이 기준에 대한 5%의 年次增加量 및 50種을 최저 기본 단위로 하고 人口 100만당을 기준으로 할 때 복본을 제외한 최소한 1,000여종의 정기간행물과 그들에 相應하는 年間資料購入費(IFLA 기준은 人口 1인당 藏書量 2卷, 年次증가량 0.25卷, 人口 1,000명당 정기간행물 10종을

기준으로 제시함)을 策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읍니다.

2. 學校圖書館

과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教育의 變化는 人間의 眞理와 價値追求에서부터 知識爆發, 인구팽창, 工業化에 따른 加速的인 社會變化에 적응하는 完全한 人間形成을 目標로 變遷되어 왔읍니다. 그리하여 現代社會에서의 教育은 生理的 신체적 발달과 지적 능력, 情意的 性格의 特性과 道德的 社會의 人格의 特性이 서로 調和롭게 薰陶되는데 目的을 둔과 同時에 未來의 새로운 變化, 혁신, 개혁, 창조에 대처하여 나갈 수 있는 人間形成에 그 초점을 두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과외수업의 폐지와 입시 위주 教育의 지양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現代社會에 대처하여 나갈 수 있는 人間形成을 위한 全人教育의 實現化를 目標로 學校教育의 改革이 단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一連의 教育改革事業이 効果的으로 推進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教授-學習方法의 開發과 더불어 學校圖書館의 組織的, 計劃的인 藏書開發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成就되기 어렵다 함은 이미 여러 學者들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읍니다.

따라서 學生들로 하여금 現在와 未來社會의 變化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가장 支配的인 教育方法이었던 教科書中心 教育을 止揚하고 school media program의 開發을 통한 問題解決能力과 判斷力, 創意力 등의 開發과 教授-學習 能率의 向上을 도모함과 同時에, 이의 實現化를 위하여 現在 圖書室과 視聽覺室(또는 資料室)로 二元化되어 있는 圖書形態資料와 視聽覺資料를 하나로 綜合하여 소위 school media로서의 概念을 定立하고 지금까지 圖書위주로만 이루어졌던 도서관자료는 教授-學習過程에 필요한 모든 非圖書形態의 教育資料도 포함하여 對等한 位置에서 조화와 균형있게 開發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외에 正常靑少年과 非正常靑少年의 독서에 의한 感銘率을 비교하여 보면 正常靑少年쪽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認知하고 올바른 독서습관형성으로부터 올바른 人格形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서흥미의 발달단계에 따른 독서자료의 計劃的인 수집도 看過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方向으로 藏書를 開發하기 위하여는 量的 側面에서 보았을 때 최소한 어느 程度의 水準을 유지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 現實情을 감안하여 볼 때 최소한 國民學校 學生 1人當 3冊, 年次增加量 0.25冊中, 高等學校 學生 1人當 5冊, 年次增加量 0.5冊, 中·高等學校의 경우 定期刊行物 20-30種; 各種 視聽覺資料

2,000-3,000種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지며, 나아가 質的 水準向上을 위하여는 現在 學生自律的 經費속에 포함되어 있는 資料購入費를 獨立시켜 上記한 資料들을 購入하는데 充分하도록 豫算範圍를 築定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3. 學術圖書館과 國家圖書館

大學圖書館, 研究機關이나 企業體 圖書館, 國家圖書館들은 共히 現實社會改造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機關들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現今의 國家政策의 方向을 살펴 보면 序言에서도 밝힌 바와같이 經濟面에서는 1982-1987년에 이르는 第5次經濟社會發展五個年計劃을 發表하고 安定되고 균형있는 經濟社會發展을 圖謀함과 아울러 頭腦集約產業開發에 力點을 두고 있으며, 大學教育面에서는 卒業學點을 인하하고 自律學習態도와 思考力, 創意力 培養을 위한 課題中心教育을 實施함과 더불어 教育人口의 大幅教育의 推進 등 실로 多角的인 方向에서 變化를 追求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一連의 變化는 곧 學術圖書館 및 國家圖書館들의 目的과 奉仕計劃에도 直接的인 影響을 미친다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豫想될 徵視의 情報要求에 對處하여 나가기 위한 藏書開發에 미치는 影響은 더욱 크다 함은 周知의 事實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같은 國家政策들이 効率的으로 推進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藏書開發을 어떠한 方向으로 推進하여야 할 것인가.

大學圖書館의 경우는 그동안 大部分의 圖書館들이 學部圖書館의 水準에 머물러 있었으나 大學院中心教育의 實現과 一連의 國家政策支援을 위하여는 最小限 단톤(Periam J. Danton)이 말한 藏書構成의 5段階中 2段階인 大學院生이나 教授의 豫備的 調査 支援水準인 'working collection'의 水準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며, 博士課程 學生數와 研究所數가 많은 規模가 큰 綜合大學과 같은 경우는 어떤 特定分野의 外國學術文獻에 대한 分擔蒐集協力에 따라 主題別이나 國家別, 또는 言語別에 의한 4段階수준인 'Comprehensive collection'水準을 部分的으로 갖춘 本格的인 研究支援度라 할 수 있는 3段階수준인 'research collection'水準의 方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量的으로 볼 때 前者의 경우는 最小한 學生 1人當 50-80卷의 藏書量을, 後者의 경우는 學生 1人當 100餘卷의 藏書量을 갖추고 年次增加量은 1人當 4-5卷, 定期刊物은 1人當 1種 程度를, 그리고 資料購入費는 學校總豫算額의 5% 程度의 水準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입니다.

研究機關이나 企業體 산하의 圖書館의 경우도 비록 奉仕對象者數는 적다하더라도 情報奉仕의 性格이 大學의 'research collection'水準과 마찬가지로 高度의

研究的 機能 遂行에 必要한 藏書構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研究機關이나 圖書館들이 제각기 國內外的 必要한 文獻을 망라적으로 蒐集한다는 것은 不可能할 뿐 아니라 非經濟的이므로 地域 및 國家水準의 協力프로그램에의 參與를 고려하여 主要圖書館으로 하여금 主要한 外國의 學術文獻이나 特殊資料를 各國別, 言語別 또는 主題別로 分擔하도록 하여 'comprehensive collection' 水準의 藏書構成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읍니다.

다음으로 國家圖書館의 경우는 무엇보다 먼저 國家文獻保存에 대한 절대적 責任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圖書에만 거의 集中하여 망라적 수집(true completeness)을 하였으나 國內에서 나오는 모든 形態의 非圖書資料까지도 蒐集을 망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뿐만이 아니라 他 學術圖書館과 마찬가지로 外國의 學術文獻을 主題別이나 國家別 또는 言語別 등으로 分擔 蒐集하여 'comprehensive collection' 水準의 藏書構成은 물론 現在 發刊되고 있는 外國圖書館目錄과 같이 全 學術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에서 蒐集한 外國 學術文獻에 대한 綜合目錄發刊의 責任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國家單位的 組織的, 計劃的인 藏書開發이 効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政府當局의 政策的 配慮에 의한 特別財政支援이나 民間財團 등의 積極的인 後援이 要請된다 하겠읍니다.

고객 여러분 의 꾸준한 지도와 편달로 성장한
폐사는 항상 여러분 의 편익에 도움이
되하고자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유네스코 쿠폰 대행기관
- 단행본 및 학술잡지
- 구미서적 수입판매

科學書籍센터

SCIENCE PUBLICATIONS CENTER

서울特別市 鍾路區 鍾路 1街21番地 光化門私書函333号

電話 (723)6719 (725)0934